옥정호 독성물질 검출 조사 의문 제기

도, 옥정호 수변 표층만 채수해 검사한 값으로 신빙성 의문… 산성정수장 정수·원수 모두 독성물질 불검출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25일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 대책위에서 기자회견 내용을 검토하고 독성물질 검사 값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류 검사를 위해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배를 타고 호소 안으로 들어가 수심에 따라 상중하로 통합 채수해야 함에도 정읍시민대책위에서 옥정호 수변의 표층만 채수했기 때문에 채수방법에 문제가 있고, 수체의 대표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읍시민대책위가 옥정호에서 채수 당시 전북도는 녹조 제거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유관기관과 협업해 선박 교란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면서, "선박 교란으로 인해 조류들이 수변으로 밀려와 집중되는 상황에서 수변 표층에서 채수했기 때문에 검사 값도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읍시민대책위에서 조사한 지점은 환경부가 조류 검사를 위해 지정한 공식적인 지점이 아니다. 옥정호의 대표 지점은 칠보취수구이고, 칠보취수구는 환경부가 매주 조류 검사를 하며, 현재까지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정읍시민의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산성정수장을 운영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독성물질 검사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할 수 있게 요청했고, 정수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불검출됐다. 또, 정읍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가로 활성탄 처리해 왔기에 상수도는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정읍시민대책위가 발표한 옥정호내 마이크로시스틴 검사 값으로 시민들에게 상수도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주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원수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 감시항목과 기준은 없으나, 정읍시민대책위 자료에 따라 칠보발전취수구 원수에서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마이크로시스틴 0.72㎍/l의 수치는 WHO 기준인 1㎍/l 이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전북도는 옥정호 수질 및 녹조 제거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정읍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가 주관으로 녹조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해 관심단계 수준으로 선제적 방재 활동을 해왔다. 옥정호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한 가축분뇨 등도 특별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옥정호 주변에 식당, 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 처리하고 있으나, 방류수 수질을 한번 더 처리하기 위해 하수처리장 하단에 인공습지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수자원공사, 시군과 협의중이다.

한편, 전라북도는 양 시군 갈등 해결을 위해 옥정호 상생발전협의체 구성안에 대한 유관기관, 시군 의견수렴이 10월 24일 완료됨에 따라 상생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다.

상생협의체가 구성되면 상생협력선언서(2015년 5월 26일) 및 합의(2016년 11월 24일) 사항은 논의하지 않고, 상생협의체에서 호소 내 조사지점 확대, 녹조 원인조사 등 정읍시민대책위 요구사항 포함해 많은 안건들을 토론하고 결정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새만금 개발 앞당기자'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과 정책 발굴·논의를 위해 26일 서울에서 2022년 새만금 정책포럼이 열린 가운데,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북도, 농업-식품기업 간 상생협력 확대

올해 농산물 생산자단체 12개소·식품기업 6개소 지원… 품질관리·영농환경 개선·판촉·홍보 등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농산물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 간 '가공용 원료 농산물 납품·구매계약으로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진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자단체 12개소, 식품기업 6개소를 선정해, 생산자 단체는 2,000~4,000만원, 식품기업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농협 등)는 5농가 이상으로 조직화되고, 식품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 공급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관리비"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식품기업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조달받는 경우"신제품개발, 판촉·홍보, 시설·장비 임차비"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18개소, 530여 농가가 참여하여 땅콩, 참깨 등 16개 품목에, 3,474톤을 납품하고 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쿠엔즈버킷 식품기업은 고창 참깨 작목반, 익산 성당 들깨참깨 작목반과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42농가에서 생산한 참깨·들깨 14톤을 수매하여, 참기름, 샐러드소스, 드레싱 제품을 생산 25억원을 매출을 올렸으며, 국민바이오(주) 식품기업은 익산 소청자(약콩) 작목반과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12농가에서 생산한 약콩 20톤을 수매하여, 국내 첫 번째 기능성표시 두유제품을 생산하여 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23년에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8월에 예비사업자 21개소를 선정하고, 국비 예산을 올해 2억7,500만원 대비 20% 증액된 3억3,000만원을 확보하여, 더 많은 농가와 식품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선정된 예비사업자 2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추진 관련 사전컨설팅을 진행하여,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이 모두 상생·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입주기업 모집

도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핵심 거점 공간이 될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10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생산품 판로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11월 9일까지이다. 입주기업에게는 임대료 50% 감면과 혁신타운내에서 운영하는 시제품제작 프로그램, 영상및 촬영장비 활용, 교육·컨설팅·네트워킹·세미나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라북도 금융사회적경제과(280-4308) 및 전북경제통상진흥원(711-213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수 기자

구인·구직 면접의 날 개최

성장사다리기업-구직자 간, 일자리 제공·채용 지원

전전북도는 27일 전북테크노파크 2층 대강당에서 '전북도 성장사다리 기업 구인·구직 면접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전북테크노파크, (사)캡틱종합기술원과 협업으로 진행되며, 구직자와 전라북도 성장사다리기업 간의 현장 면접의 기회를 제공해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채용을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큐어(주) 등 17개 기업이 구인기업으로 참여한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 면접이 가능한 기업은 아이큐어(주), ㈜그룬, ㈜디딤돌, ㈜신호테크, ㈜인전정밀, ㈜진우에스엠씨, ㈜플라스바이오, 케이넷(주) 등 10개사, 현장에서 이력서를 접수하고 향후 별도 면접을 진행하는 기업은 부성테크㈜, ㈜디쏠, 농업회사법인 ㈜디자인농부, ㈜엄지식품, ㈜에스첨단소재, ㈜코팅코리아, 천양피앤비(주) 등 7개사이다.

도는 지역 중소기업을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에 따라 1단계 돋움기업 → 2단계 도약기업 → 3단계 선도기업 → 4단계 스타기업 → 5단계 글로벌강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구인·구직 면접의 날'은 성장사다리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홍보에서부터 면접, 채용까지 원스톱으로 추진, 기업의 채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사이다.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이메일 접수는 물론 온라인 채용사이트 '사람인'을 통해 이력서 사전접수를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접수하지 못한 구직자를 위해서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지참하고 행사장을 방문할 경우 해당 기업과 매칭하여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정읍시, 정보보안 관리실태 '최우수기관'

정읍시가 전라북도에서 진행한 '2022 시·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14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정보보안 수준에 대해 실시한 평가에서 총점 97.6점을 획득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는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 침해가 늘어남에 따라 도내 시군의 정보보호와 사이버 침해 대응능력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진행됐다.

평가 내용은 △관리적 보안 분야 △기술적 보안 분야 △위기 대응 역량 분야 등으로 3개 분야 47개 항목에 대한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평가했다.

시는 정보보안에 대한 전문성을 갖기 위해 2018년부터 정보 보호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보안 업무를 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부서별 지도점검과 정보보안 감사로 보안상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보안 관리 수준이 향상됨을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보안사고 예방 활동과 자체 보안 기강 확립 등 사이버 보안체계를 더욱 강화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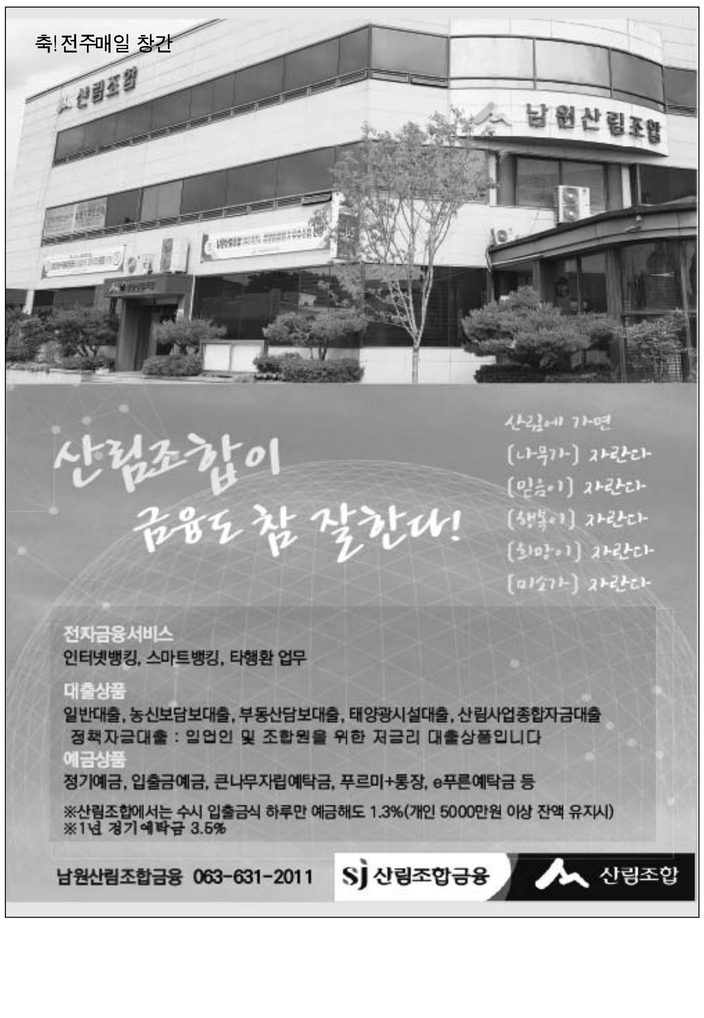
/정읍=김대환기자

완주·익산, 녹색도시 우수사례 수상

가로수·도시숲 분야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산림청에서 실시한 '2022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 참여해 완주군이 가로수 분야 최우수상, 익산시가 도시숲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 산림청에서는 도시숲·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과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전국적으로 14개 지자체에서 27개 대상지를 신청했는데, 전북도에서 2개 분야(가로수, 도시숲)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거머졌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수상은 민관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도시숲을 조성하고 가꾸는데 노력했기 때문이다"며, "우리 주변의 도시숲을 더욱더 잘 관리해 아름다운 숲의 모습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